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무산 위기

문 대통령 영·호남 상생 공약...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안돼
“국가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영호남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동건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이 첫 관문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포함하고, 예비타당

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첫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5~6월께 이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현재 달빛내륙철도는 이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광주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 확

인한 결과,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과정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계획안 수립 전 단계인 공청회에서도 달빛내륙철도가 아예 빠져있다”고 조오섭(북구을·국토교통위) 의원실에 보고했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지난해 진행한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평가(B/C)가 0.483에 머물고 있는 점이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달빛내륙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직·간접 영향권에 97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달빛내륙철도를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및 장

기적으로 남북내륙선, 경전선과 연계하면 국가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지자체의 지역낙후도는 순창 137위, 함양 152위, 합천 158위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 같은 국가 인프라 건설 타당성은 경제성 고려가 필요하지만 ‘경제성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며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달빛내륙철도를 반영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앞서 정치권도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광주지역 8명, 전남·북 3명, 대구 12명, 경남·북 2명 등 모두 27명의 국회의원과 영호남 해당 지자체

장 등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광주시·대구시, 담양·순천·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등 경유지 지자체장 10명과 광주·대구 시의회 의원 그리고 이 지역 시민단체 9명 등도 동참한다.

한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203.7km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km로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인 이 사업은 최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건설 필요성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실발 ‘N차 감염’ 확산...누적 41명

최초 전파자 이 의원 수행비서
상무지구 식당서 감염 가능성
서울 확진자 다녀간 시기와 겹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사무실 관련 코로나 19 확진자가 N차 감염을 거듭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41명까지 늘어났다. 광주 상무지구 룬살롱·담양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광주일보 2021년 4월 19일자 2면)한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경로 특성을 통한 확산세 차단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전남 방역당국은 19일 “지표환자로 추정하는 전남 989번(이개호 의원 지역수행비서)이 4월 1일 다녀간 광주 상무지구 A식당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광주시, 담양군 방역당국과 공동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당 식당에 비슷한 시기 서울 중구 확진자가 다녀갔고, 이후 4월 8일 2명의 확진자가 해당 식당을 매개로 발생했다”며 최초 감염 경로 추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남 989번은 지난 11일부터 기침·가래 등 증세 발현이 됐다고 설명하나, 그 이전부터 증세가 있었으나 자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 수행비서인 전남 989번이 지난 5·8일까지 만난 완도 지인(16일 확진·998번)이 확진 전 유증상 외 부 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 확산을 부른 최초 감염이 수행비서에게서 시작됐고, 감염 경로도 상무지구 식당일 가능성이 있는 게 방역당국의 잠정 결론이라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또한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실 당직자, 비서, 수행비서, 당원 등 있던 감염 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역시 관할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담양 식당에서의 7인 식사 모임의 경우 담양군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상무지구 룬살롱 5인 이상 술자리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모두 41명으로 파악됐다. /김형호 기자 khh@



19일 오전 광주 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일반인 주민들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예진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 “감염 확산 지속뎌 거리두기 상향”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코로나19 안정세를 유지하던 광주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지역 감염 확진자가 54명이었지만, 최근 1주일(11~18일) 사이에는 58명이 발생해 광주 공동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가족,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코로나19가 일상 깊이 침투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15일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가 포함된 담양 지인 모임과 관련해 22명이 확진됐다. 음식점, 유흥주점, 사우나 등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 n차 감염이 확산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자녀들이 확진돼 전날 한 초등학교 1400명에 이어 이날

도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 등에서 전수 검사가 진행됐다.

이 시장은 “개인의 이기주의, 일탈 행위로 공동체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시민의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돼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는 시민 삶과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 문화예술에 이어 이번 주 운영하기로 했던 여성·보육 분야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을 연기하고 시설, 단체, 활동가 등 방문과 면담 일정도 잠정 연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353개 기업 참가

20일부터 5월 4일까지 ‘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된다.

2018년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은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가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전남도는 2번의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353개 기업의 참여로 111명을 채용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광주·전남 소재 150여 중소기업의 참여와 50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비대면 채용이 증가 중인 추세를 반영해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www.jobkorea.co.kr)를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 홍보하고 구인·구직자 간 매칭 성사가

지 지원한다.

또 채용정보와 인재정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한다. 분야별 직무 인터뷰 및 우수 자기소개서에 소개해 구인·구직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예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버스’ ▲임대주택 단지과 도서지역을 돌며 취업연계서비스를 하는 ‘JOB-US(일자리버스)’ ▲사회초년생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구인구직의 날 등을 운영한다.

서이남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위한 실효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전연, 오늘 지역상생 필요성·방법 논의 포럼 개최

광주전남연구원원은 20일 오후 연구원 8층 상생마루에서 지역 상생의 필요성과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상생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전남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구성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시·도 공동협력과제 33건을 발굴·확정하는 등의 성과에 대해 해묵은 몇몇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광주 공군항 이전, 광주민간공항 무안군 제공항 통합 사업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해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만원 교수(광주대 세무경영학과)가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재철 수석연구위원(광주전남연구원)이 진행한다. 강인호(조선대 교수), 이영철(전남대 교수), 김병록(목포대 교수), 나주몽(전남대 교수), 박종렬(광주경찰청 집행위원장), 이재창(분권운동본부 전남공동대표), 류재준(광주광역시청 균형발전정책과 전문위원), 형광현(전라남도청 광역협력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이번 지역상생 포럼을 통해 ‘광주·전남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현안 해결 및 이를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주)오천투자대부
2020·금감원·2027 (대부업, 대부중개업)
여신금융감독사국 대부업총괄팀 02-3145-8265

**고정수입·안정투자
돈 놀분**

문의.010-3605-5000

대출금리 최고 연24% 이내(연체금리 연24% 이내) 부대비용 있음
취급수수료 없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수기동)
대출시 귀하의 신용에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농식품 수급안정

식품산업육성

농수산물 수출진흥

농식품 유통개선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혁신
보다나온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